

# 기독교상담적 삼중관계상호작용모델 연구

김 성 환\*

##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소통은 증가하는 반면, 현실세계에서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따라서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관계상호작용의 회복을 돕는 일은 심리와 영성의 통합적 치유와 성숙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상호작용의 전체구조와 역동은 어떠한지를 살펴 보고, 잘못된 관계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랑의 통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관계 상호작용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의 준거틀을 모판으로 '나-하나님', '나-타인', '나-나 자신' 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기독교상담적 관계상호작용의 구조의 틀을 마련하고, 이에 Freud 등 몇몇 학자들의 심리이론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추출된 '공격성', '의존성', '회피성'의 상호작용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접목한 삼중 관계상호작용모델(ADE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통찰하고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의 참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주제어:** 삼중적 관계구조, 하나님의 참 사랑, 참 믿음의 의존성, 관계의존적 상호작용, 관계매개적 상호작용

- 
-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6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6일
  - \*광신대학교 복지상담학과 교수
  - 본 연구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상담분과 발표(2021년 4월 24일) 논문임.

## I. 여는 글

상담분야에서 정신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과 연관하여 영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이 근래에 나타난 현상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Westgate, 1996; 류혜옥, 김명련, 2002). 더군다나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하는 전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적인 차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 상담분야에서 상담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신체, 심리, 영성을 최적으로 통합된 상태로 이끌어 소위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데 있다면 심리와 영성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김성환, 2013; 김필진, 2008).

컴퓨터와 인터넷은 물론 AI(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의 날로 발전하는 기술문명의 그늘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된 듯하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소통과 교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소통과 만남은 점점 더 약화 되고 있다. 사실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는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영성의 약화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유영권, 1999). 따라서 기독교인의 심리와 영성의 통합적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관계상호작용을 회복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정도의 연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관계 상호작용의 차

별성은 무엇이며, 그 상호작용의 전체구조와 역동은 어떠한가? 둘째,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등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기독교인과 비교되는 기독교인의 관계상호작용의 기독교상담신학적 준거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상담에서는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이 ‘나 - 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혹시 여기에 덧붙여 ‘나 - 나 자신’ 까지를 고려하려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경우 ‘나 - 하나님’ 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나 - 하나님’, ‘나 - 타인’, ‘나 - 나 자신’ 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삼중관계상호모델을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기독교인 상담분야에서 관계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상담심리분야에서도 ‘나 - 타인’ 혹은 ‘나 - 나 자신’ 과 연관된 관계 상호작용의 구조와 역동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관계 상호작용의 기본요소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몇몇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Jacobson(1964)은 인간 내면의 미분화된 에너지가 리비도 추동과 공격성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추동으로 변형된다고 보았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4개의 범주를 가진 ‘자기 - 타인’ 이원 모델을 통해 관계 상호작용의 기본요소를 제시하였다. Satir도 의사소통의 4가지 유형의 제시를 통해 관계 상호작용의 기본요소가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였다(송정아, 1996). 따라서, 필자는 이들 학자들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의 심리이론이 보여주는 관계상호작용의 양상을 탐색하여 상호작용의 기본요소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적 준거들과 제 심리이론들에서 추출한 관계상호작용의 기본요소들의 통합적 적용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여 '잘못된 관계의 존적 상호작용의 틀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한 삼중관계상호작용모델(ADE모델)을 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 적용사례를 들어 삼중관계상호작용모델(ADE모델)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밝히는 동시에 기독교상담 장면에서의 효율적인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II. 펴는 글

### 1. 관계상호작용의 기독교상담신학적 준거틀

현대적 의미의 심리치료가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과학적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영성의 이슈가 소홀히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이 근본적으로 한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차원의 건강뿐 아니라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인의 관계 상호작용의 치유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 심리적 역동뿐 아니라 영성적 차원을 결코 도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인간존재에 있어 영성적차원은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기타 다른 차원들인 심리적, 육체적, 사회문화적 차원과 서로 연관되면서 전체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Chandler & Kolander, 1991; 김성환, 2013).

상담분야에서 심리와 영성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때, 상담에서 일

반적 영성개념과 기독교 상담에서의 영성개념의 차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상담심리분야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인간존재의 본질과 연관된 궁극적 실체나 초월적 힘과의 신비적 연합, 초월, 우주적 합치나 깨달음을 통한 자기 초월 등을 통한 인간의 전체성이나 자기성취나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된다(류혜옥, 김명련, 2002; 설기문, 김기주, 1999; 김명권, 조옥경, 2002). 그러나 기독교상담 분야 특히 개혁상담신학적 차원에서의 영성은 성경이 계시하는 유일하신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영성은 일반적으로 '경건'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 청지기적 사명과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영성,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도 한다(류혜옥, 김명련, 2002). 그러므로 심리와 영성을 통합하는 기독교상담적 상호작용 관계치유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상호작용의 성경적 회복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상담에서 치유를 위한 관계상호작용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그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상담에서 대부분의 심리이론들은 성경이 말하는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있고, 한 개인과 그와 상호작용을 하는 타인과의 관계, 즉, 수평적 단일차원의 대인관계만을 다룬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기독교상담적 차원에서의 심리영성통합치유의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재하시지만 초월

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 회복 즉 ‘나 - 하나님’ 과의 관계 상호작용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상호작용을 회복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 - 타인’ 과의 수평적 관계 상호작용도 성경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참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 - 하나님’ 의 수직적 관계 상호작용과 ‘나 - 타인’ 의 수평적 관계 상호작용과 더불어 ‘나 - 나 자신’ 과의 내면적 관계 상호작용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심리영성통합치유에 있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 시절 무자비한 양육자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지만 마음이 어려 그 상처와 분노의 응어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성장한 어떤 여자아이의 경우, 어른이 되어 그 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면서 그 응어리를 푸는 피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김성환, 2014).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본주의적 심리치유 접근에서는 ‘자기사랑(self-love)’ 이나 ‘자기존중(self-esteem)’ 의 범주와 관련하여 자신 내에 잠재해있는 자원이나 역량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성경적 자기사랑’ 의 관점에서 ‘나 - 나 자신’ 과의 내면적 관계 상호작용을 다루고자 한다(김성환, 2005).

정리하자면, 심리영성을 통합하는 기독교상담신학적 치유접근에 있어 치유의 궁극적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 상호작용의 치유와 회복의 출발은 바로 ‘나 -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 -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여 치유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 - 타인’ 사이의 수평적 차원,

그리고 ‘나 - 나 자신’ 사이의 내면적 차원의 관계 상호작용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 심리영성통합치유가 총체적이고 전인적 차원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성경적 관계 상호작용의 회복을 통해 상처를 주는 ‘가해자’와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참사랑의 통로로서의 매개체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2. 제 심리이론에서 살펴 본 관계상호작용의 기본요소

### 1) 정신역동적 관점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본 관계상호작용

Freud는 인간의 무의식적 심연을 이해하기 위해 본능(instinct)과 추동(driv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본능을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이며 생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다고 보았고 추동은 인간의 심리내적인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기로 이해하였다. 그는 삶의 추동인 에로스(Eros)와 죽음의 추동인 타나토스(Thanatos)라는 이원 추동을 주장하였는데 이원추동이론을 통해 성과 공격성을 무의식적 갈등과 심리적 구조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윤순임, 2005; 안석 2016). Jacobson(1964)은 인간 내면의 미분화된 에너지가 리비도 추동과 공격성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추동으로 변형된다고 보았다. Blanck와 Blanck(1979)는 리비도를 대상과 합일하려는 추동으로, 공격성은 대상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추동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Jean과 Jean(1967)은 Freud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사랑의 욕망과 적대적인 욕망의 결합으로 보았음에 주목하면서 정신분석은 결국 성욕과 공격성의 결합과 분리의 복잡한 놀이를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것은 사랑과 공격성의 양가성(ambivalence)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성향이나 태도나 감정인 사랑과 증오가 같은 차원에서 공존하는 동시에 동일한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랑과 공격성의 양가성은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율배반적 형태로 표출되곤 한다. 이들은 자신을 배신 혹은 변심한 듯 한 연인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인 사랑으로 집착하던 자세에서 돌변하여 그 대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극단적인 증오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는 이상화 된 대상관계와 박해 혹은 공격하는 대상관계사이의 분열로 인해 대상에 대한 소위 이상화(idealization)과 평가절하(devaluation)의 극단적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Kernberg, 2016).

Malanie Klein도 인간의 욕동의 양가성에 주목한다. 클라인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사랑은 대상에 대한 파괴 혹은 공격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신생아가 출산 이후 맨 처음 가지게 되는 공포는 탯줄이 끊겨서 자궁 밖으로 나와 모체와 분리되었다는 공포이며 이로 인해 반항심과 공격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신생아는 대상에 대한 공포와 공격성을 엄마에게 투사하여 그 엄마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박해공포(persecutory anxiety)을 가지게 되는 편집-분열의 위상(paranoid position)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때로 꾸지람도 주는 나쁜 대상(bad-object)이지만 동시에 모유와 보살핌도 주는 좋은 대상(good-object)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가지 면을 함께 지닌 전체대상(whole object)임을 인식하는 우울적 위상(depression position)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Kernberg, 1994).

Klein은 나쁜 대상(bad-object)이 유아가 가지고 있는 파괴나 공격성이 엄마에게 투사된 것으로 보았지만 Fairbairn은 유아가 자신을 좌절시키거나 거절한 엄마를 내면에 내재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Fairbairn(1995)은 자신을 거절하거나 좌절시키는 엄마를 통해 거절하는



대상(rejecting object)을 경험하여 내적 파괴적 자아(internal saboteur ego) 혹은 반리비도적 자아(antilibidinal ego)를 형성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엄마(exciting object)를 경험하여 리비도적 자아(libidinal ego)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내적 파괴적 자아(internal saboteur ego) 혹은 반리비도적 자아(antilibidinal ego)는 거절과 좌절감으로 인한 분노와 복수심과 공격성으로 가득차고, 리비도적 자아(libidinal ego)는 항상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는 의존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Fairbairn(1995)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Freud의 심리성적단계이론을 거부하고 유아의 의존성을 중심으로 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의 발달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일시하는 유아적 의존단계(early infantile dependency)에서 과도기(transitional period)를 거친다고 보았다. 그 후 주체와 객체, 자신과 대상과의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독립성을 확립하면서 건강한 의존적 태도를 형성하는 성숙한 의존단계로 발전해나간다고 보았다. 따라서 Klein은 대상관계에서 선천적으로 유아가 지닌 공격성을 강조한 반면, Fairbairn은 실제 관계에서 자신을 거절을 통해 실망시킨 엄마를 나쁜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를 내면에 '반리비도적 자아'로 내재화시킴으로 실제로는 관계의 중요성과 유아의 의존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Kernberg, 1994).

## 2) 애착이론을 통해 본 관계상호작용

애착이란 한 개인이 생애초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며 영아가 특정인의 곁에 함께 있으려고 근접성을 추구하는 안정된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애착관계의 질은 애착대상에 대한 유아의 의존정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정감의 근원이 된다. 또한 아이는 초기 애착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양육자와의 초기 경험을 내면화하여 향후 자기, 타인, 자기와 타인

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형성한다(Bowlby, 1958).

애착유형이란 애착이론에 따라 분류되는 개인의 애착행동과 정서체계를 말하며 Ainsworth(1969)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통해 3가지 애착유형을 제시했다. 먼저 엄마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나타내는 B 유형이다. 이 유형은 엄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되어 활발하게 놀고 짧은 이별 후에도 엄마 접촉 후 바로 안정을 찾는 유형이다. 다음은 불안-회피적 특성을 나타내는 A 유형이다. 이 유형의 유아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도 탐색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집중도가 떨어지며 짧은 이별 후 엄마와 재회 할 때도 쳐다보지 않거나 회피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저항적 특성을 나타내는 C 유형이다. 이 유형의 유아는 분리 시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여 엄마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 같으면서도 재회 시에도 엄마를 밀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Ainsworth, Blear, & Wall, 1978).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유아는 애착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애착 대상인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게 된다는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4개의 범주를 가진 ‘자기-타인’ 이원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 번째, 자기긍정-타인긍정인 ‘안정형’, 두 번째, 자기긍정-타인부정인 ‘거부형’, 세 번째, 자기부정-타인긍정인 ‘의존형’, 네 번째가 자기부정-타인부정의 ‘두려움형’이다. 장희숙(2000)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Ainsworth의 3 범주 분류보다 Bartholomew와 Horowitz 4 범주 분류가 성인기의 애착 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준다고 보았다. 먼저 ‘안정형’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자기긍정-타인부정인 ‘거부형’의 사람은 타인을 거부하거나 비판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자기부정-타인긍정인 ‘의존형’의 사람은 의존욕구가 강하여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타인의 인정에 예민하다. 마지막으로 자기부정-타인부정의 ‘두려움형’인 사

람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피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 3) Satir의 의사소통모델을 통해 본 관계상호작용

Satir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임상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의사소통과 대처방식에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가치가 손상을 입을 상황에 처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티어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생존의 유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로 자기, 타인 그리고 상황을 들었다. 그녀는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자신의 존재가치에 위협을 느끼는 긴장 상황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생존방식으로 규정하고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이들 역기능적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의 두려움과 상호관계에 대한 불신감, 좌절감, 거절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며 그 결과 언어적 메시지와 얼굴표정, 몸의 위치나 포즈 혹은 근육의 긴장정도나 음성이나 음색 등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송정아, 1996).

Satir가 분류한 네 가지 생존방식의 의사소통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는 비난형이다. 비난형은 되도록 자신의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한 자기주장과 의지를 나타낸다. 타인이나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타인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면 그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공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둘째는 회유형이다. 회유형은 자기 자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과 상황만 중요하게 여긴다. 회유형은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비위를 맞추려 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부터 최소한의 호의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은 것이 긴장상황을 모면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는 최선을 방법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초이성형이다. 초이성형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의 세 요소 중 자신과 타인은 무시하고 오직 상황만을 고려하는 유형이다.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려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혹은 지치거나 거부감이 생겨 그러한 일들에 대해 일종의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인 산만형은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하는 유형으로 주위 사람들이 상대하기에 쉽지 않은 유형이다. 겉으로 표현은 잘 안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무가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김영애, 2010).

#### 4) 제 심리이론을 통해 본 관계상호작용의 기본요소

필자는 앞서 정신역동이론, 대상관계이론, 애착유형 이론의 여러 학자들과 Satir의 의사소통 유형이론등을 살펴보면, 각 이론들에서 관계상호작용의 기본요소들을 크게 ‘공격성’과 ‘의존성’ 그리고 ‘회피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각 각의 이론이 제시하는 여러 인간관계의 여러 유형에서 각 각의 유형들이 관계 상호작용의 세 가지 기본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였지만 이를 관계상호작용의 세 가지 계열별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계상호작용의 기본요소로서 관계적 대상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계열이다. 여기에는 Frued과 Jacobson과 이 Jean과 Jean 말

하는 공격적 추동, Blanck와 Blanck는 대상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추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Klein이 강조하는 영아의 ‘공격성’과 Fairbairn의 반리비도적 자아(antilibidinal ego), 그리고 Bartholomew와 Horowitz의 ‘거부형’과 Satir의 ‘비난형’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의 대상에 대해 ‘의존성’을 보이는 계열이다. Freud, Jacobson, Jean과 Jean, Klein이 말하는 성욕이나 사랑, Fairbairn의 리비도적 자아(libidinal ego), Blanck와 Blanck가 말하는 대상과 합일하려는 추동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Bartholomew와 Horowitz가 제시한 ‘의존형’과 Satir가 제시한 ‘회유형’ 계열 등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의 관계적 대상에 대한 ‘회피성’ 계열이다. 여기에는 Bartholomew와 Horowitz의 ‘두려움 형’과 Satir의 ‘초이성형’이나 ‘산만형’ 등이 속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상호작용의 역동을 살펴보기 위한 몇몇 심리이론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공격성’(Aggression), ‘의존성’(Dependency), ‘회피성’(Evasion)을 추출하고, 이를 심리영성 통합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관계상호작용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작용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기독교상담적 관계상호모델의 개발: ADE Model중심으로

#### 1) 창조, 타락, 구속의 준거들을 통해 본 관계상호작용모델의 특성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의존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고 성취해나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 창조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나 -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창조

무대에서 타인이나 나 자신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성경적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의 무대에서 주어졌던 ‘나 -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을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타락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는 잘못된 관계의존의 양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유일한 믿음과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 대신에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잘못된 관계의존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심리 상담분야에서 일종의 병리적 증상으로 동반의존이란 개념이 있다. 동반의존(co-dependency)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거나 독립성의 결핍으로 인해 인격발달이 저해되어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겪으므로 성인이 되어도 타인에게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가운데 자신의 필요와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증상을 말한다(Carr & Buchanan, 1997). 안은숙(2013)은 “기독교상담적 차원에서 동반의존을 정체성의 상실과 함께 낮은 자존감과 상처받은 자기가치감을 보상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며 타인에게 감정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 중독”으로 보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동반의존의 본질을 죄와 우상숭배와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만약 우리가 안은숙의 관점을 일부 받아들여 “동반의존을 타락이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과 의존을 버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람 즉 타인과 자기 자신을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다 폭 넓게 재 정의 한다면 타락 이후 인간이라면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동반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밝힌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공허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로 대치하였다. 기독교상담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이 지닌 동반의존적 성향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 의존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 즉, 타인과 자신을 더 의존하는 죄성과 우상 숭배적 경향성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락으로 발생하게 된 잘못된 관계의존의 양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앞서 몇몇 심리이론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추출한 관계상호작용의 세 가지 기본요소, 즉, ‘공격성’ (Aggression), ‘의존성’ (Dependency), ‘회피성’ (Evasion)을 도입하여 적용해보자.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즉,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계의존의 관계상호작용’의 요소는 ‘공격성 의존’ (aggressive dependency), ‘의존성 의존’ (dependent dependency) ‘회피성 의존’ (evasive dependency) 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공격성 의존’, ‘의존성 의존’, ‘회피성 의존’ 등의 잘못된 관계의존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구속의 주님과 만남과 은혜를 통해 치유와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독교상담적 관계상호작용 치유모델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길을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열어 놓으셨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

며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다(Tripp, 2009; May, 2005).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 깨어진 삼중 관계 즉 수직적 차원으로는 '나 - 하나님', 수평적 차원으로는 '나 - 타인', 내면적 차원으로는 '나 - 나 자신' 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하나님' 과의 수직적 차원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때로 실존적 삶의 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타인' 과의 관계나 '나- 나 자신' 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흘러보내지 못할 때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감과 다양한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옛 본성과 죄성의 잔재, 다시 말해 폭넓은 의미의 동반의존적 성향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동반의존은 자신의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허감을 채워줄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얻는 등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증상이나 경향성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필자는 본 논고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자신의 상처나 분노의 응어리를 해소할 대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하는 것, 타인이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은 물론, 혹은 자신이나 타인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 또한 결국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동반의존적 경향성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몇몇 심리이론들을 통해 본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기본요소를 의존성, 공격성, 회피성의 세 가지 계열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개혁상담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심리이론들이 제시하는 모든 관계상호작용의 원리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보



다 인간들 간의 관계문제와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심리학이론들이 분석하고 회복을 추구하는 관계상호작용 모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배제한 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인간관계에 더 집착하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존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동반의존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동반의존적 경향에 함몰된 인간 의존 중심의 수평적 관계상호작용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수직적, 수평적, 내면적 차원을 포함하는 입체적 패러다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의존성의 회복에 기초하여 ‘나 - 타인’, ‘나 - 나 자신’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추구하는 총체적 심리영성통합치유를 위한 개혁상담신학적 관계상호작용 모델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심리영성통합치유를 위한 삼중관계상호작용모델(ADE모델)의 개발

### (1) ADE모델의 개괄적 구조와 제반 요소들

ADE모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나 - 하나님’, ‘나 - 타인’, ‘나 - 나 자신’ 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조화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모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공격성 의존’, ‘의존성 의존’, ‘회피성 의존’ 등의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본다. ADE모델은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한 십자가의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그 참사랑을 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관계매개적 상호작용 상태’로의 전환을 돕고자 설계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 한분만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태'에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더 살펴보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F)을 가진 연고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항상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대경(2017)은 루터와 칼빈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후에, 내적인 거룩함과 기도를 넘어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선행의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타인과 자신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실존적 삶의 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참 사랑을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Jun, 2017)

본 논고에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웃과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의 관계상호작용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참 믿음의 의존성'(DT: Dependency of True Faith)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성호는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믿음이 나타내는 다양한 은혜의 스펙트럼을 열거하면서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게 하며, 성령께서 인쳐주시며, 선행을 일으키며, 칭의, 성화,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며, 복음이 제시하는 약속에 대한 굳은 확신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철

저한 신뢰를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참 믿음의 의존성’(DT)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F)이 지닌 여러 신비한 은혜의 스펙트럼 중의 한 요소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상호작용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게 하는 믿음이 제공하는 일종의 자원”으로 제한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웃과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참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여러 신비한 은혜의 요소 중 ‘참 믿음의 의존성’(DT)의 자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믿음의 신비한 측면 중 하나인 ‘참 믿음의 의존성’(DT)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오히려 공격성(A)이나 회피성(E)을 보이거나 ‘유사의존성’(Df: Fake Dependency)의 경향성을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의존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 상태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으로 타인으로부터 오는 공격성(A), 의존성(D), 회피성(E)의 자극에 대해 같이 ‘공격성 의존’(aggressive dependency), ‘의존성 의존’(dependent dependency) ‘회피성 의존’(evasive dependency)으로 대응하는 ‘잘못된 관계의존’의 틀 속에 갇혀있다. 이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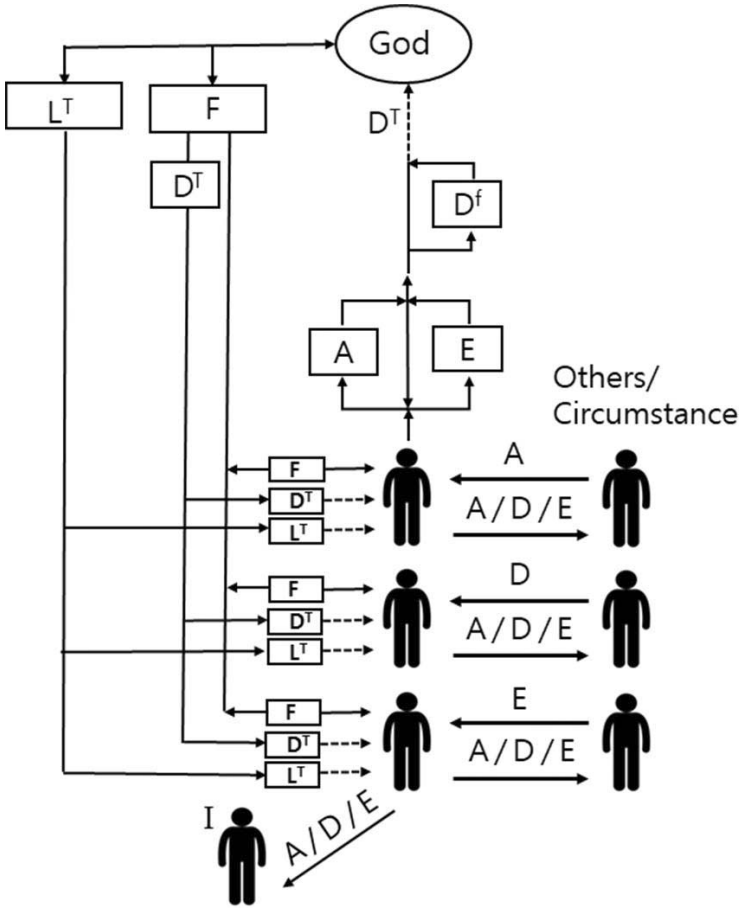
특정 상황에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즉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더 의존하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믿음의 양상을 보인다.

하나님보다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더 의존하여 타인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공격성이나 의존성이나 회피성으로 상호작용하는 ‘잘못된 관계의 존 상호작용’ 상태에서 벗어나 ‘관계매개적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특정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F)과 그 믿음의 여러 신비한 자원 중 하나인 ‘참 믿음의 의존성’(DT: Dependency of True Faith)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활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그 결과 비록 타인이 공격성(A), 의존성(D), 회피성(E)의 상호 작용의 요소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타인과 모든 자극과 힘든 상황을 존재하는 그대로 용납하고 평안함으로 수용한다. 이때 물론 “관계매개적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으로 부터 오는 공격성(A), 의존성(D), 회피성(E)의 자극에 대해 똑같이 ‘공격성(A), 의존성 의존(D), 회피성(E)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상, 즉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받아 누리신 은혜와 참사랑 LT(Ture Love)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된다.

(2) ADE모델의 구체적 적용: ‘잘못된 관계 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서 ‘관계매개적상호작용상태’로

ADE모델의 기독교상담적 적용과정을 도표와 구체적 적용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a.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 상태



〈도표 1〉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 상태

- A: Aggression(공격성)    D: Dependency(의존성)    E: Evasion(회피성)  
 F: Faith(믿음)    LT: True Love of God(하나님의 참사랑)  
 D<sup>T</sup>: Dependency of True Faith(참 믿음의 의존성)    D<sup>f</sup>: Fake Dependency(유사의존성)

도표 1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더욱 의존하는 ‘잘못된 관계의존 상호작용’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먼저 도표 1을 살펴보면 세 개의 층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인인 중심부의 ‘나’를 중심으로 상단에는 ‘나 - 하나님’과의 관계, 오른쪽으로는 나 -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쪽 왼쪽 방향으로 ‘나 - 나 자신’과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왼쪽 편이 ‘나를’ 향한 화살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세 개의 층으로 표현된 은혜의 요소들, 즉,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F: faith)과 믿음의 여러 신비하고 다양한 은혜의 요소 중 하나인 ‘참 믿음의 의존성’ (DT: Dependency of True Faith), 그리고 하나님의 참사랑 L<sup>T</sup>(True Love of God)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구원의 믿음(F)과 ‘참믿음의 의존성’ (DT)과 참 사랑 L<sup>T</sup>(True Love of God)의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믿음(F)의 화살표만이 양방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나’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F)’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도표 1을 살펴보면 본 논고에서 믿음의 여러 신비하고 다양한 은혜의 요소 중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타인과의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자원으로 제시한 ‘참 믿음의 의존성’ (DT: Dependency of True Faith)의 화살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도표상의 주인공인 ‘나’ 자신에게 제대로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결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있는 참사랑(L<sup>T</sup>)도 점선으로 표시되어 충분히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고 타인과 나 자신에게로 흘러보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이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상황에서 ‘잘못된 관

계상호작용'의 틀 속에 갇힌 그리스도인의 '나-하나님', '나-타인', '나-나 자신'과의 관계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표에서 주인공인 '나'의 오른쪽 편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세 개의 층으로 된 '나 -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첫 번째 쌍의 상호작용 사례이다. 어느날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상사 B씨로 인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건을 경험하였다. 입사초기 때부터 나는 직장상사 B씨를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 따랐고, B씨가 잘못된 업무 결과의 책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잘못된 책임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면서까지 자기 나름대로 B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써왔었다. 그런데 직장상사인 B씨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나의 업적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나를 여러직원들 앞에서 모함하고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성(A)을 나타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래도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나는 그래도 자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상사를 최선을 다해 따르고 받들어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직장상사가 회사에 있게 하셨는지? 등을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에게 공격성(A)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멍한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주일예배도 빠지면서 하나님에게 회피성(E)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앞의 도표를 보면,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A와 E부분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못하고 되돌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설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가령 나를 배신한 B씨에게 친벌을 내려주시고 복수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나의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유사의존성'(Df: Fake

Dependency)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나의 복수를 대행해줄 도구적 존재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연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F)은 간직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에서 주인공인 '나'는 직장상사 B씨가 어처구니없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러 신비한 요소 중 하나로 허락하신 '참 믿음의 의존성' (D<sup>T</sup>)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표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의존성'인 D<sup>T</sup>의 연결이 점선으로 표현되어 연결이 확실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결과 도표에서 주인공인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자신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는 직장상사 B씨에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하고 공격성(A)을 나타내거나, 분노가 있음에도 참고 겉으로 순응하는 듯 의존성(D)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를 보면 피하고 전혀 쳐다보지 않는 등 회피성(E)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직장상사 B씨의 어처구니 없는 공격성으로 인해 상처받은 상황에서, '참 믿음의 의존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께 대하여 A, E, D<sup>T</sup>로 반응하고 '타인'인 직장상사 B씨에게 공격성(A)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의존성(D)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회피성(E)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상황은 '나 -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상사 때문에 힘들어 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끼는 공격(A)을 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자신감에 휩싸여 자신을 의존(D)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회피(E)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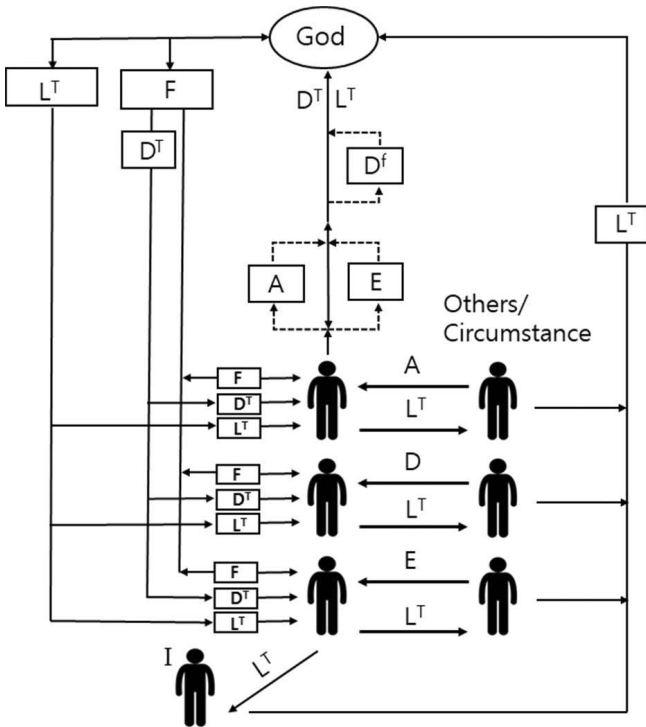
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주님의 참사랑으로 나 자신을 안아 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미성숙한 상호작용의 모습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도표 1에서 두 번째 ‘나 - 타인’ 쌍의 그림을 보면서 상호작용을 살펴보자. 가령 같은 직장의 후배직원이 자신의 일을 잘 하지 않고 매사에 ‘나’를 지나치게 의존(C)하여 사사건건 모든 업무를 물어 보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태만한 태도로 처리하여 짜증나고 귀찮게 느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 문제로 인해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께 “왜 이런 후배를 직장에 보냈셨느냐?”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공격(A)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회피(E)할 수도 있고 유사의존성 (D<sup>f</sup>: Fake Dependency)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A, E, D<sup>f</sup>로 반응한 것이 되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후배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를 공격(A)을 하든지, 아니면 의존(D)하든지 아니면 회피(E)하게 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상황은 ‘나 -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에게 분노를 느끼는 공격(A)을 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자신감에 휩싸여 자신을 의존(D)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회피(E)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주님의 참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자신에게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표 1에서 세 번째 ‘나 - 타인’ 쌍의 상호작용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인 및 대 자신 관계 의존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상호작용은, ‘나’로 표현되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F)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공격(A)하거나 회피(E)하는 등의 실제적 삶의 정황 속에서 ‘참 믿음의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므로 주님과

량의 인격적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결과 참사랑  $L^T$ (True Love of God)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게 흘러보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문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받아주고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미성숙한 관계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인다.

b. '참 사랑의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로의 전환



〈도표 2〉 참 사랑의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

- A: Aggression(공격성)      D: Dependency(의존성)      E: Evasion(회피성)  
 F: Faith(믿음)               $L^T$ : True Love of God(하나님의 참사랑)  
 $D^T$ : Dependency of True Faith(참 믿음의 의존성)       $D^f$ : Fake Dependency(유사의존성)

도표 2는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회복한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의 성숙한 관계역동을 보여준다.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받들었던 직장상사인 B씨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나의 업적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나를 여러직원들 앞에서 모함하고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성(A)을 나타내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공격성(A)을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회피(E)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유사의존(D<sup>f</sup>: Fake Dependency)가지고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의 의존성' (D<sup>T</sup>)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과 수치심과 복수심의 응어리로 가득찬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L<sup>T</sup>: True Love of God)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가정 해보자.

이 경우 도표 2에서 보듯이 비록 직장상사 B씨가 말도 안되는 공격성을 통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신비하고 다양한 은혜의 스펙트럼 중 한 요소인 '참 믿음의 의존성' (D<sup>T</sup>)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 만남 '나'는 그 순간 직장상사나 타인으로 부터 오는 어떤 상처나 관계적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타인'이나 '나 자신'을 공격(A), 의존(C), 회피(E)함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사랑 L<sup>T</sup>(True Love of God)을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을 나에게 상처를 준 직장상사 B씨를 비롯한 '타인들'과 '나 자신'에게 온전히 흘려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

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타인에게 하나님의 참사랑(LT: True Love of God)을 흘려보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LT)이 되므로 이것이 앞의 도표에 표현되었다.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의 상태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존하는, 모든 동반의존적 경향성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성숙한 상태를 보여준다.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의 그 어떤 부정적 상호작용의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LT: True Love)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으로 ‘타인’과 ‘나 자신’을 존재적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관계 상호작용의 전형을 보여준다.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사랑의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로 하여금 타인으로 인한 관계적 어려움의 상황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신비하고 다양한 은혜의 스펙트럼 중 한 요소인 ‘참 믿음의 의존성’(DT)을 어떻게 잘 누리고 활용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 관건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의 의존성’(DT)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우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국한시키기에 앞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돕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한 일종의 도우미로 여기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김성환, 2014).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특정인을 통해 자신에게 고통과 어려

음을 주도록 궁극적으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언가 차갑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 혹은 심지어 잔인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분으로 바로 보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받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 고통의 순간에 그 어떤 아픔도 함께 하시는 성경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김성환, 2014, 2011). 이외에도 기독교상담자는 피상담자에 따라 그에게 맞는 ‘참 믿음의 의존성’(DI)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 III. 닫는 글

사람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심리와 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와 전인적 성숙을 돕기 위한 심리영성 통합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첫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관계 상호작용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그 상호작용의 전체구조와 역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기독교인과 달리 기독교인의 관계상호작용은 근간이 ‘나 - 하나님’ 수직적 관계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나 - 타인’의 수평적 차원과 ‘나 - 나 자신’의 내면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입체적 상호작용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심리영성 통합치유를 위한 삼중관계상호작용 모델의 구조적 기본골격으로 삼았다.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내면적 차원의 구조를 지닌 삼중관계상호작용의 역동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reud의 이론과 몇몇 학자

들의 심리역동이나 대상관계이론들, 그리고 애착이론과 Satir의 의사소통이론들을 살펴보면서 관계상호작용을 위한 기본적 유형 요소를 ‘의존성’, ‘공격성’, ‘회피성’의 세 가지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를 탐색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의 준거틀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믿음이 있음에도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존의 참되고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공격성 의존’, ‘의존성 의존’, ‘회피성 의존’의 잘못된 관계 의존의 틀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인의 관계상호작용의 역동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나 - 하나님’, ‘나 - 타인’, ‘나 -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와 상호작용의 회복과 성숙은 바로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서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논의하였다. 본 논고에서 말하는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은혜의 스펙트럼 중 한 요소인 ‘참 믿음의 의존성’ (DT: Dependency of True Faith)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비해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은혜의 스펙트럼 중 한 요소인 ‘참 믿음의 의존성’ (DT: Dependency of True Faith)을 온전히 누리고 활용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과적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LT)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삼중관계 상호작용모델(ADE모델)과 제시된 사례의 적용을 폭넓게 활용하여, 기독교상담자는 자신은 물론 피상담자의 관계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사랑'의 삶을 회복해나가기 위한 작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미처 깊이 다루어지지 못한 다음의 연구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후속 연구에서 더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먼저, 삼중관계 상호작용모델(ADE모델)의 성경적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잘못되거나 혹은 올바른 삼중적관계상호작용의 양상과 역동의 사례들을 삼중관계 상호작용모델(ADE모델)이 준거틀을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기독교상담자 자신과 피상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관계의존적 상호작용상태'에서 '참 사랑의 관계매개적 상호작용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관건을 하나님께서 각 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 믿음의 의존성' (DT: Dependency of True Faith)을 제대로 누리고 활용하는데 달려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원리와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덧붙여서, 본 모델을 활용한 임상장면에서의 실제 상담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권석만 (2016).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명권, 조옥경 (2002). 요가의 심리치료적 가치-아스탕가 요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02(3), 256-257.
- 김성환 (2014). *꿈이 있는 치유*. 대전: 도서출판 그리심.
- 김성환 (2014). *꿈과 치유의 멘토링*. 대전: 도서출판 그리심.
- 김성환 (2013).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21, 53.
- 김성환 (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연구. *복음과 상담*, 16, 141-143.
- 김성환 (2005). 자기존중감(self-esteem)이론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성경과 상담*, 5, 60-75.
- 김영애 (2010). *사티어의 병산의사소통방법*.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필진 (2008).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영성과 영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접근. *목회와 상담*, 10, 12-13.
- 류혜옥, 김명련 (2002). 개혁주의 영성과 상담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2, 30-55.
- 송정아 (1996).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학생생활연구*, 11, 5-18.
- 설기문, 김기주 (1999). 상담에의 현상적 접근-명상수행을 통한 반응의 해결. *동아논총*, 3, 105-128.
- 안석 (2016). 사랑과 공격성에 관한 정신 분석적 고찰과 치유상담. *신학과 실천*, 52, 211-242.
- 안은숙 (2013). 동반의존자의 하나님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방안 연구. *복음과 상담*, 21, 156-189.
- 안이환 (2000). 대상관계 이론과 상담실제.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32, 47-52.
- 유영권 (1999).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학.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 세미나 강의집*, 19, 133-142.
- 이성호 (2012). '오직 믿음(Sola Fide)'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국개혁 신학*, 35, 209-232
- 장희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대처 방식의 중재역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 141-157.

- 전대경 (2017). 루터와 칼빈의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해를 통한 개혁주의 이신칭의 재조명: 이행칭의가 아닌 신행일치를 위하여. *Acts 신학저널*, 34, 193-233.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lters, E., & Wall, S. N.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Y: Erlbaum.
- Carr, A., & Buchanan, D. (1997). A theological Analysis of co-dependency Theorie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51, 304-34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lanck, R., & Blanck, G. (1979). *Ego psychology II: Psychoanalytic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Chandler, C. K., Holden, J. M., & Kolander, C. A. (1991). Counseling for spiritual wellness: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168-175.
- Fairbairn, W. R. D. (1995). 성격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이제훈 역,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4 출판).
- Jacobson, Edith. (1964). *The self and object wor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Jun, Daekyung. (2017). The meaning of 'neighboring' in the perspective of evangelical biblical hermeneutics: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Lucan Good Samaritan story. *Studies in Systematic Theology*, 26, 32-55.
- Kelly, E. W. Jr. (1995)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A: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ernberg, Otto. (2005). 남녀 관계의 사랑과 공격성: 정신분석적 이해(윤순임 역, *Love relations: Normality and pathology*). 서울: 학지사. (원전 1998 출판).
- Kernberg, Otto. (1994).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박철민 역,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ies*). *원광정신의학*, 10, 9-14.
- Lapalche, J., & Pontalis, Jean-Bertrand. (1967) *Vocabulaire de la psychanalyse*. Paris: Press ess Universitaire de France.
- May, G. (2005). 중독과 은혜(이지영 역, *Addiction and grace*). 서울: IVP. (원전 1988 출판).
- Tripp, P., & Lane, T. (2009). 관계가 주는 기쁨(이명숙 역, *Relationship: A mess worth making*). 서울: 미션월드. (원전 2006 출판).
- Westgate, C. E. (1996).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26-35.

【 Abstract 】

A Study of a Triple Relational Interaction Model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Counseling

Kim, Sung Hwan\*

In the f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formation Age, communication in the virtual space is increasing while human relations in the real world are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Accelerating Christians' biblical recovery of relationship interaction suffering from relationship difficulties has become an essential task for their integrated healing and maturit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d propose a relational interaction model to help Christians undergo psycho-spiritual integration healing and maturity. We first explored the aspects of relational interaction shown by the psychological theories of Freud and other scholars, and extracted 'Aggression', 'Dependency', and 'Evasion', as three basic element that activate relational interaction. We examined the overall structure and dynamics of Christian interactions and develops the model of relationship interaction on the frame of reference of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for the purpose of helping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from erroneous relationship interactions to recover their life of the channel of God's true love. To this end, the three-fold relational interaction model(ADE), reflecting three basic elements of the relationship interaction of 'Aggression', 'Dependency', and 'Evasion' on the basis of the structure of relation with 'I-God', 'I-Other', and 'I-I', was proposed. This model can be used to help Christians who are struggling with relationships with others to gain insight into themselves and to recover their life of a channel of God's true love.

**Key words:** triple relational interaction, true love of God, dependency of true faith, dependent relational interaction, mediating relational interaction

\* Kwa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Welfare Counseling / Professor